

※ 원 문

앞 면

贈諡眞覺國師碑銘」

- (1) 高麗國國師大華嚴宗師 禪教都摠攝傳佛心印大(智無碍性相圓通福圓應尊者 贈諡眞覺碑銘并序」
- (2)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 臣李穡奉教撰」
- (3) (결락)
- (4) 洪武十五年夏六月十六日 華嚴浮石國師 示寂于彰聖社 不朽也 判宗
- (5) 上 上賜諡曰眞覺國師 塔曰大覺圓照 命臣穡文于石 門人等以 師行狀來 不甚悉 不敢下 筆久矣 有敬南者
- (6) 山 今始至徵文 語其事曰 甲辰秋 吾師航海抵杭 吾執侍 跬步不離側 吾師到休休菴蒙山眞堂 夜有光
- (7) 人衣鉢 心異之引 師至方丈 肩鏹甚固 有三轉語在壁 師逐語下語 鑰有聲 忽啓 衆皆肅然 室中有櫝 師
- (8) 棒拂在此 將以授我耳 啓之衆益服 又有漆小櫝無縫者 其上曰時未至而啓者 天必譴 浙省丞相張大尉之弟
- (9) 何物藏 師曰文書也 又問今可啓乎 師曰可 果有書二秩 其中言群盜破壞三寶乃底滅亡之事 丞相怒
- (10) 海外來 殺之何益 吾謹吾法爾 其收蒙山衣物 放之去 內午春叅萬峯於聖安寺 三日不出 戶峯曰高麗老和
- (1) 無入時 豈有出耶 峯曰我病矣 誰有好眼看我病 師以拳安其背 是夜三更 萬峯以袈裟禪棒授之曰 不聞
- (12) 至吳江 有僧請留 師固辭 萬峯堂下欲奪其師衣棒 是夜追至吳江僧房 不及而還 僧之姓馬也 聞其鳴而
- (13) 渡也必矣 嗚呼 蒙山夢之於前 萬峯戒之於後 灼見未來 妙堪遺囑 師資之道 無間於古今遐迩 此釋氏之
- (14) 玄陵勞慰良渥 國人爭先瞻禮 師隱于雉岳 游于東海 致洛山觀音放光之瑞 丁未正月 還雉岳」
- (15) 上遣使邀 師者三 師始至五月封爲國師大華嚴宗師禪教都摠攝 傳佛心印 大智無碍 性相圓通 福
- (16) 圓應尊者 置府設寮屬 賜印章法服 庚戌九月」
- (17) 玄陵請 王師懶翁 選境內禪教諸僧功夫節目 師爲證明 既罷居敬天 辛亥遊金剛山 五月」
- (18) 上遣使請還 其秋懇乞歸雉岳 歲壬子住浮石 重營殿宇悉如舊 蓋爲身後計也 師諱千熙號雪山興海人 具贈
- (19) 理判書 妣崔氏 崔氏夢見大艦 群僧梵唄 水漲至門 因而有身 彌月又夢 白鶴啄其腹 青帖袈裟 一僧躍出 以大德丁未五月二十」
- (20) 一日生 師年十三投華嚴盤龍社主 非大師薙髮 十九登上品選 歷住金生德泉符仁開泰等十餘寺 其衣服飲食 與
- (21) 小異 操志甚高 叅究禪旨 在小伯山 夢見蒙山 付其衣法 在金剛五臺亦如之 此所以決志南遊也 嘗著三寶 一鏡觀若干卷 行于」
- (2) 世 師年七十六 法臘六十三 臣聞普照國師 師大鑑友大慧 侍者每於夢中見

之 至今爲林美談 今圓應自夢蒙山 得傳衣法」

(23) 釋氏之教不可得而思議也 信哉 臣穉敢不爲之銘 銘曰」

(24) 大道無外 何有古今 苟求其故 曰惟此心 心之不失 夢覺爲一 周流如川 煥赫如日 佛法之傳 妙乎人天」

(25) 夢中授受 如在目前 昔聞照公 今見圓翁」

(26) 玄陵崇之 俾師國中 年將八秩 示有生滅 千載斯碑 勿訛勿缺」

(27) 洪武十九年丙寅正月 日 門人開泰寺住持妙智無碍通照大師 冲述 立石 比丘惠岑 刻」

뒷 면(陰記)

(2행 이상이 결락)

(1) 寺主法 國一都大禪 師 ……

(2) 寺住持 三重大師 奉壽君 ……

(3) 金生寺住持 重大師 利世君 ……

(4) 盤龍社主法 廣通圓妙洪濟大師 ……

(5) 燈明寺住持 大師 ……

(6) 前月南寺住持 大禪師 ……

(7) 法王寺住持 廣通圓妙大師 ……

(8) 開泰寺住持 左街都僧錄 大師 景岳

(9) 重大匡 韓葦 判典農寺事 ……

(10) 重大匡開城君 王 君 ……

(1) 三司左使 廉 邦 厚德府 韓脩 ……

(12) 三重大匡花山君 權仲和 知申事 ……

(13) 竹城府院君 安克 ……

(14) 鐵城府院君 李 琳 政堂文學 權 典 判 李

(15) 南陽府院君 洪永通 重大匡 城君 鄭

(16) 漆原府院君 尹桓 重大匡永嘉君 禧 典工判書 洪

(17) 推忠保節同德翊戴 臣壁上三韓三重大匡門不右侍中判

鷄林府院君李 寶林

(18) 忠勤亮節變理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

번 역

고려국의 국사 대화엄종사 선교도총섭으로서 (법호가) 선불심인 대(지무애 성상원통 복 원응존자이고 진각이라는 시호가 추등된 스님의 비명 및 서문)

수충보절동덕찬화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으로 한산부원군이며 영예문춘추관 사인 신 이색이 왕명을 받들어 지음)

흥무 15년 여름 6월 16일에 화엄(종)의 부석국사께서 창성사에서 입적하시었습니다. … (그 업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종 … 가 임금님께 아뢰자 임금님께서는 (국사의) 시호를 진각국사, 탑호를 대각원조라 내려주시고 신(이)색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명하시었습니다. (국사의) 문인들이 국사의 행장을 가지고 왔지만 대단히 자세하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감히 붓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남이라는 승려가 … 지금 비로소 찾아와서 (완성된) 비문을 요구하면서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갑진년 가을에 우리 스승께서 배를 타고 항주에 도착하셨는데, 내가 시중을 들며 반 발작도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휴휴암의 몽

산스님의 진당에 도착하시자, 밤에 빛이 … (몽산스님의) 의발(을 전해 받으러 왔다)고 하시자 (휴휴암의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안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스승께서 방장에 이르러 보니 자물쇠가 매우 단단히 잠겨져 있고, 벽에는 삼전어가 있었습니다. 스승께서는 그 (삼전어를) 따라서 설명하시니 자물쇠가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방 안에 귀작이 있었는데, 스승께서 (가사와) (禪)봉과 불자가 여기에 있는데 ‘장차 나에게 전해주려 하신 것이다’하고 여시니 대중은 더욱 감복하였습니다. 또한 봉해지지 않은 작은 옷칠함이 있었는데, 그 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여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절성승상 장대위의 동생께서 …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고 물어 보았

습니다. 스승께서는 문서가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지금 열어도 되는지 묻자 스승께서는 열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열어보니) 과연 문서 두 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둑들이 삼보를 파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승상이 화를 내고 … (스승께서는) ‘…외국에서 왔는데 (나를)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법에 힘쓸 뿐입니다.’하고 앞서 수습하였던 몽산이 남겨 놓은 옷과 물건들을 두고서 떠나왔습니다. 병오년 봄에 성안사에서 만봉스님을 찾아뵈었는데, 3일 동안 문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봉스님이 ‘고려의 나이든 스님께서 …’라고 하자 스승께서는 ‘들어온 때가 없는데 어찌 나가는 때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만봉스님이 ‘나는 병이 들었는데, 누가 좋은 눈으로 나의 병을 봐줄 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스승께서는 주먹으로 (만봉스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3경에 만봉스님께서 가사와 선봉을 주시면서 ‘…’라고 하시었습니다. … 오강에 이르자 어떤 스님이 머물러 가기를 청하였지만 스승께서는 굳이 사양하고 계속 갔습니다. 만봉의 문하에 있던 승려가 자기 스승의 옷과 선봉을 찾으려고 그날 밤 뒤를 쫓아 오강의 승방에 까지 이르렀지만 (스승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승려는 마씨로 … (강을) 건너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아, 앞에서는 몽산 스님이 꿈으로 인도하고, 뒤에서는 만봉스님이 경계하여 주었으므로 (국사께서는) 미래를 밝게 보고 유혹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스승과 제재의 도가 과거와 현재, 먼 곳과 가까운 것에 막힘이 없었으니 이것이 석씨(釋氏)의 ….

(국사께서 귀국하자) 현릉(玄陵, 공민왕)께서는 두터이 위로해주셨고, 나라 사람들은 다투어 찾아뵈고 예를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국사께서는 치악에 숨으셨다가 동해에 가시어 낙산에 관음이 빛을 발하는 상서로움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정미년 정월에 치악으로 돌아오시자, 임금님께서 세 차례나 사람을 보내 스승을 맞이하셨습니다. 국사께서 5월에 처음 (궁궐에) 이르시자 국사 대화엄종사 선교도양섭으로 책봉하고 전불심인대지무애성상원통복원응존자라는 법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울러 (국사의) 부를 설치하고 휘하 관료들을 두고, 인장과 법복을 내려주셨다. 경술년 9월에 형릉께서 왕사 나옹스님에게 나라 안의 선종과 교종의 여러 스님들의 공부절목을 시험하게 하셨을 때에는 스님은 증명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끝나자 경천사에 머무시다가, 신해년에 금강산으로 가셨다. 5월에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내 (개경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여 (개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여

치악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자년에 부석사에 머무르시면서 법당과 여러 건물들을 예전과 같이 모두 중영하셨는데 이는 입적하신 뒤를 대비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국사의 이름은 천희(千熙)이고 호는 설산(雪山)이며, 흥해(興海) 사람입니다. (속성은 ㄷ씨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전(典) 이판서(吏判書)로 추증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씨(崔氏)입니다. (어머니) 최씨가 큰 배에 탄 여러 승려들이 범패(梵唄)를 부르자 물이 불어나 (배가 집의) 문에 이르는 꿈을 꾸고서 임신하였고, 여러 달이 지나서 다시 백학(白鶴)이 (어머니의) 배를 쪼자 푸른 가사를 입은 승려 한 사람이 뛰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대덕(大德) 정미년 5월 21일에 (국사께서) 태어나셨습니다. 13세에 화엄종 반룡사(盤龍社) 사주(社主)인 일비대사(一非大師)의 문하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고, 19세에는 (승과에서) 상품(上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감생사, 덕천사, 부인사, 개태사 등 10여곳 사찰에 머무르셨는데, 그 옷과 음식은 …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행에 대한) 뜻을 매우 높 이 하면서 선지(禪旨)를 탐구하였다. 소백산에 있을 때에 몽산스님이 의법(衣法)을 부촉하는 꿈을 꾸었고, 금강산과 오대산에 있을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강남 지방에 유학을 결심하게 된 까닭이었다. 일찍이 『삼보일경관』 약간권을 지었는데,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국사께서는 세속의 나이 76년, 법랍 63년을 누리셨습니다. 신은 보조국사(普照國師)께서 대감(大鑑)스님을 스승으로 하고 대혜(大慧)스님을

벗으로 하는 모습을 (보조국사의) 시자(侍者)가 꿈에서 매번 보았던 일이 지금까지 총림(叢林)의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응존자는 스스로 꿈에서 몽산 스님을 뵈고 가사와 법을 전하였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정말로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 색(穢)은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명(銘)을 짓습니다. 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도(道)는 바깥이 없는데 어찌 옛과 오늘이 있으리오. 굳이 그 연고를 찾는다면 오직 이 마음이리라. 마음을 잃지 않으면 꿈과 깨어 있음이 다르지 않고

시간과 물과 같이 흘러갔지만 오늘 보는 것처럼 분명하도다. 부처님의 법(法)을 전함은 인간 세계와 천상세계보다 오묘하니

꿈 속에 주고 받음이 눈 앞에서 함과 같다. 예전에 보조국사의 일을 들었는데, 이제 원응존자에게서 다시 본다. 현릉(玄陵)이 숭앙하여 나라의 스승으로 삼으셨고

나이 팔십을 바라볼 때 입적에 드시었네. 이 비는 천년 동안 전해져서 국사의 업적 빠짐없이 전하리라. 흥무 19년(1386) 병인 정월 일에 문인(門人)으로 개태사 주지인 묘지무애통조 대사(妙智無碍通照大師) 충술(冲述)이 비를 세우고 비구 혜잠(惠岑)이 글을 새김 음기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명단이다.